응용생태연구 3(1) : 107~113, 1989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용특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Ⅱ)[1]

- 이용동기 및 만족도 -

김 성일[2] · 김 용식[3] · 공 영호[4]

Studies on the Us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in Kayasan National Park, Korea(Ⅱ)[1]

- Visit Motivation and Satisfaction -

Seong-Il Kim[2], Yong-Sik Kim[3], Young-Ho Kong[4]

요 약

요인분석의 결과 가야산 국립공원 방문의 동기는 행위참여, 종교 / 과학적 탐구욕, 경관감상 및 사회적 동기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4가지 방문요인을 가지고 인지과밀도 및 시설 / 서어비스 성취도 평가 등의 변수들과 함께 만족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는 대피소 및 휴식시설에 대한 평가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만족모델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모델내부에서의 역활이 논의되었고, 미래의 연구 방향의 제안도 언급되었다.

ABSTRACT

Pa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ere analyzed to show the relatonships with various variables. From the factor analysis, 4 dimensions of motivation were identified: activity paticipation, religious / scientific inquiry, landscape enjoyment, and social contact. The motivation dimension, crowdness measure, and other related variables were analyzed to construct satifactrion model using multiple regression. Behavior of each variable in the model was disscussed with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

1 접수 11월 30일 Received on Nov. 30, 1989.

2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l Univ., Daejeon, Korea.

3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Yeungnam Univ., Kyungsan, Korea.

4 서울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Seoul Nat'l Univ., Suwon, Korea.

서 론

1970년대 이후부터 레크레이션 연구는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영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소위 행동접근법(Behavioral Approach)은 이제까지의 행동접근법(Activity Approach)이 이용자에 의해 표출된 명백한 행위(Overt Behavior)에 주된 관심을 갖는데 비하여 이용자가 왜 특정행위에 참여했으며 어떠한 경험의 질을 지각(Perception)하는가에 연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방향의 전환은 관련 학술잡지의 상당부분을 할애 받은 동기(Motivation), 선호(Preference), 만족(Satisfaction)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확인되어 진다.

사회심리학을 근거로하는 행동접근법은 레크레이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의 개발에 상당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왜냐하면 레크레이션은 행위 자체로 정의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특정행위의 참여에 따른 이용 경험의 만족상태"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왜 레크레이션 행위에 참여하고 어떠한 내적 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하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본 분야의 기초연구 주제이자 궁극적인 해결 과제라고 지적 될 수 있다.

이용자의 방문동기와 만족도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분석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이용자 관리를 위한 분석의 일환이기도 하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방문동기에 부합되는 행위 및 기회의 제공과 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는 이용자 경험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효한 방안이다. 한편 방문동기의 규명을 통하여 전체 이용자의 만족을 심각히 저하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방문동기 집단을 차후의 이용으로 부터 배제 시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비영리 마케팅분야에서 언급되는 시장축소전략(Demaketing Strategy)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과다 이용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야산 공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립공원의 이용자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는 공원 이용의 궁극적인 산물이 이용경험의 만족이라는 면을 고려할때 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될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만족"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관련 이론으로 相違이론(Discrepancy Theory)을 지적한다. 이 이론의 주된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족은 한 개인의 생각으로 그가 마땅히 누려야할 성과(Outcome)의 정도와(기대), 실제로 인지된 성과(현실)와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상이한 기대치를 갖고 접근하는 다양한 개인에 의해 인지되는 만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보고 결과는 레크레이션 이용에 따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부의 만족에 이르는 기작 작용의 이해 결여, 만족의 다차원적인 성격,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변수의 개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용자 만족에 기여할 결정인자를 적절히 도출할 수 있다면 관리자는 이에따른 자원, 서비스 및 관리의 방침을 조작함으로써 이용자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문동기

방문동기의 규명을 위하여 12항목의 문항이 질문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특정방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단계로 응답을 유도하였다. Table 1의 동기척도 평균치에서 보여지듯이 가야산 공원의 방문은 공원의 수려한 자원을 접하기 위함이 압도적이다. 뒤를 이어 유명사찰 방문, 친목도모 및 일상생활의 탈피도 주요한 방문동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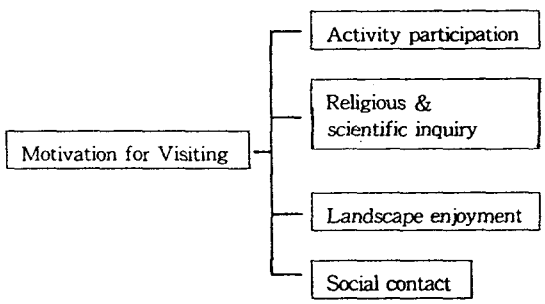

Figure 1. Motivation dimensions.

12개 항목의 방문동기를 서로 유사한 차원으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요인분석이 시도되었다. 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만을 한정 하였을때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4개의 요인의 설명력이 50%를 조금 상회하므로 만족스럽지는 아니하나 각 요인내에 연관되는 항목의 조합은 요인의 성격을 유추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째 요인은 정상정복, 심신단련, 등산기술 습득과 친목도모 등의 동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공원을 찾는 많은 등산단체들의 존재를 감안할 때 친목도모가 다른 등산관련 동기들과 연관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요인은 등산관련 요인이라고

Table 1. Factor loadings for motivation items.

Item	mean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To climb top of the mountain	2.8	0.70			
For the exercise	3.2	0.69			
To develop climbing skills	2.4	0.67			
To establish friendship	3.8	0.52			
Religious purpose	1.7		0.70		
To observe wildlife	2.2		0.68		
To observe wildplant	2.8		0.48		
To enjoy scenic beauty	4.1			0.81	
To visit famous temple	3.8			0.65	
Because there's no place to go	1.9				0.68
To escape from daily routine	3.8				0.63
To spend time with family	2.8				0.57
Eigen value		2.46	1.51	1.23	1.15
Variance explained (%)		20.5	12.6	10.2	9.6

규정된다. 둘째 요인은 종교행사, 야생조수 관찰, 그리고 식생관찰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행사 참여 동기와 나머지 두 동기와의 관계가 미흡하나 종교 및 과학적 탐구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째 요인은 수려한 자연을 접하고, 유명사찰을 방문하기 위한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명사찰 방문동기와 종교행사 참여 동기의 격리이다. 따라서 다수의 해인사 방문자는 방문자체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세째 요인은 자연, 인문경관 관련 요인으로 규정된다. 마지막 요인은 갈곳이 없어서, 일상 생활의 탈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은 보내기 위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요인은 인간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일과 노동(Work)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마지막 요인은 사회적 요구요인으로 정의 한다.

동기요인들을 요약하면 본 공원의 방문은 커다랗게 행위참여, 탐구욕, 경관감상, 사회적 접촉 욕구의(Figure 1) 네가지 차원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2. 만족도

만족도의 측정을 위하여 단일 항목으로 "이번 방문을 총 결산하여 볼때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Table 2. Satisfaction, perceived and preferred crowding, and attitude for use limit.

Satisfaction		Freq.	Perceived crowding		Freq.	Preferred crowding		Freq.	Attitude for use limit	Freq.
Very unsaitsfied	1	11 (1)	Vary crowded	1	105 (2)	Very crowded	1	26 (3)	Strongly unfavor	156 (18)
	2	8 (1)	Crowded	2	378 (45)	Crowded	2	211 (26)	Unfavor	295 (35)
	3	35 (4)								
Neutral	4	237 (28)	Neutral	3	197 (23)	Neutral	3	173 (22)	Neutral	119 (14)
	5	269 (32)	Solitude	4	145 (17)	Solitude	4	359 (45)	Favor	189 (22)
	6	150 (18)								
Very satisfied	7	133 (16)	Very solitude	5	26 (3)	Very soltude	5	29 (4)	Strongly favor	49 (6)
		n=843			n=849			n=798		n=805
		mean=5.05			mean=2.54			mean=3.20		

라고 질문 되었고 응답은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7)"까지 7단계로 작성되었다. Table 2에서 보여지듯이 표본 중에서 6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의 편중 현상은 만족도 연구 수행의 일차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심리학의 認知非共振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에 의하면 인간은 심리적 불쾌감의 감소, 혹은 역으로 만족감의 증대를 위하여 불쾌감을 유발 시키는 심리적 자극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시킨다. 특히 자신의 결정에 의한 선택(물건의 구입 혹은 레크레이션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공원이용자는 자신의 결정에 의한 공원 방문을 만족스러운 방문으로 인식하려는 심리적 현상에 의하여 만족도의 편중현상은 이해되지만,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적조작 이전의 만족도 측정이 요구된다.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문항들도 질문되었다. 이 항목들은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항목으로 대별되어, 앞에서 언급한 상위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항목은 기대값과 실제 이용 후의 평가치를 얻도록 작성되었다. 즉, 10가지의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시 인식하고 있는지를 "전혀 중요치 않다(1)" 에서 "매우 중요하다(5)"의 5단계로 질문한 후 이어서 각각에 대하여 이용 후 평가를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다(5)" 의 5단계로 질문 하였다. 두개의 항목집단이 연속적으로 질문되었을때 발생 가능한 응답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페이지에 위치시켰으며, 또한 항목 집단간의 질문순서도 무작위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다. 과밀 관련 항목은 우선 현재 이용수준을 "매우 과밀(1)"에서 "매우 한산(5)" 의 5단계로 질문한 후 이어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용수준 단계를 번호로 지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용 수준에 관하여서는 이용제한에 관한 응답자의 입장도 연결되어 질문되었다.

Table 3에서 보여지듯이 가야산공원 이용자들은 관리인들에 의한 인적 서비스 보다는 시설물의 질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이용자에 의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항목은 등산로 안전시설, 방향표지판, 휴지통 및 화장실 편의이고 입구 안내원의 역활에 대하여는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부대시설인 숙박 요식업에 대하여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용자들이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이용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의 성취도 평가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관리자의 입장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able 3의 성취도 평가 평균치를 보면 각 항목의 평균치가 중간값인 "그저 그렇다"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그 중 안전요원의 활동, 입구안내원, 공원의 과학적 사실전시, 안내책자 등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와 관련되어서,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중요도 항목에 높은 성취도평가를 하고 있어 관리방침이 이용자의 기대에 상대적으로 잘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 될 수 있으나 조사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인간

Table 3. Importance and performance measures for facility and service related items.

Item	Performanse Scale						Importance mean
	very bad	bad	medium	good	very good	mean	
Park ranger	112 (14)	219 (27)	395 (48)	73 (9)	21 (3)	2.6	4.1
Trail safety	28 (3)	131 (16)	440 (54)	185 (23)	35 (4)	3.1	4.6
Shelter / rest area	52 (8)	170 (21)	423 (52)	142 (18)	24 (3)	2.9	4.3
Entrance guide	148 (18)	248 (31)	319 (39)	74 (9)	25 (3)	2.5	3.7
Direction sign	41 (5)	129 (16)	285 (35)	289 (35)	75 (9)	3.3	4.6
Map / guide book	78 (10)	193 (24)	366 (45)	127 (16)	46 (6)	2.8	4.3
Toilet / trash can	70 (9)	135 (17)	254 (31)	271 (33)	87 (11)	3.2	4.6
Display of scientific information	95 (12)	230 (28)	358 (44)	97 (12)	33(14)	2.7	3.9
Camp ground	40 (5)	157 (20)	390 (49)	165 (21)	45 (6)	3.0	4.3
Accomodation	49 (6)	151 (19)	381 (47)	175 (22)	50 (6)	3.0	3.7

의 회귀적인 성격 즉, 중요시 여겨지는 사항에 후한 평점을 내리려는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인지 과밀도(Perceived crowding)는 단일 항목으로 "귀하의 판단으로 본 공원의 이용자수는 어느 수준입니까?"로 질문 되었다. 응답자의 20%만이 한산하게 느꼈을뿐 다수인 60%정도는 다소간 과밀한 상태로 인식하였다. 한편 대조적으로 선호되는 과밀수준은 50%정도의 응답자가 한산한 수준이었고 30%만이 과밀한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2).

계속된 질문으로 이용자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50%를 상회하여 28%의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이용자의 선호되는 과밀수준과 이용자 제한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기존의 관련연구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첫째로는 이용제한의 구체적 방안제시가 삭제된 질문에 따른 자료의 타당성 결여와, 둘째로는 이용제한이 실제 관리방안으로 채택되었을때 이용자 자신이 입을지 모를 가상 피해의식의 발로로 보아진다.

위의 3가지 변수(인지과밀도, 선호과밀도, 이용규제에 대한 태도)와 설문내의 다른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모색한 바 뚜렷한 연관을 발견치 못하였다. 인지과밀도와 만족도의 무관함은 70년대의 과밀도를 중요변수로 인식했던 만족도 모델이 제시하는 가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많은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인지과밀도와 과거방문 횟수 간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운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첫번 방문자의 경우 평균과밀도가 2.6(5단계 척도)인데 반하여 5번 이상 방문자의 경우 2.1로 일관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반복적 방문자 일수록 좀 더 과밀상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정보로 이 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으나 첫째로, 첫번 방문자는 빈약한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본 공원의 이용수준을 예측 혹은 기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는 척도의 평균치인 "보통" 으로 접근 할 것이라는 가설과, 둘째로, 지속적인 이용수준 증가가 반복적 이용자에게 갈수록 과밀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게끔 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방문횟수가 선호과밀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은 더욱 설명키 어려운 현상이다.

선호과밀도와 이용제한에 대한 태도가 서로 무관함을 보이는 반면에 과밀상태로 인지한 이용자일수록 이용규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이한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공원의 이용상태를 "매우과밀"로 인지한 이용자들의 이용규제에 대한 태도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매우 한산"으로 인지한 이용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집단간의 규제에 대한 태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0.5(5단계 척도에서)로 인지과밀도의 증가에 따라 이용규제태도가 일관성 있게 부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이에 대한 자연스런 예상, 즉, "혼잡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용규제에 찬성할 것이라는"가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차후의 정확한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으로 만족도를 예측키 위한 다중회귀분석이 시도되었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앞에 언급되었거나 혹은 2개 이상의 변수를 조작한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16개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모델의 R^2의 값은 1.57에 그치었다.

Table 4의 Tolerance 값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독립변수, 특히 성취도 평가(PERF-X)들이 다중공선상을 내포하고 있어 각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사항이나, 계수의 부호(Sign)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방문동기의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요인점수(Factor Score)의 경우 등산행위 참여의 동기, 경관감상의 동기가 높아 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 등의 사회적 동기증가는 만족도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지과밀도와 선호과밀도 차의 절대치인 DIFF는 변수성격상 값이 커질 경우, 즉 현재의 상황이 개인이 선호하는 이용수준과 멀수록, 만족이 감소할 것이며 모델내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결과 계수의 부호는 예상대로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용자 나이의 증가에 따라 만족은 증가하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기타 여행비용, 교육정도 등도 유의성이 결여되어 최종모델에 삽입되지 않았다. 행위참여 변수도 첨가 되었는데 사찰방문이 본 공원의 이용만족도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야영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IP1과 IP8은 각각 안전요원 배치및 휴지통 / 화장실 편의에 대한 성취도 평가와 중요도측정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두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즉 중요시 여겨지는 정도보다 실제 평가정도가 높을수록 만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되었던 성취도 항목중 1번과 8번을 제한 8가지 항목에서 5개가 모델에 삽입되었다.

성취도평가는 예상되었던 대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PERT-9(야영장편의)을 제외하고는 평가치의 증가가 만족도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야영장 편의에 대한 성취도평가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Table 4. Satisfaction model.
(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measure, # of observation = 651, R^2 = 1.57, F = 7.38, Sig F = 0.0)

Variable	B	Beta	Tolerance	Sig. T
FS 1	0.143	0.117	0.85	0.003
FS 3	0.219	0.181	0.89	0.00
FS 4	0.088	-0.072	0.95	0.05
DIFF	-0.054	-0.043	0.95	0.25
IP 1	0.096	0.107	0.88	0.00
IP 8	0.019	0.021	0.81	0.59
PERF-3	0.197	0.140	0.67	0.00
PERF-4	0.108	0.087	0.73	0.04
PERF-5	0.097	0.080	0.79	0.04
PERF-9	-0.097	-0.077	0.69	0.08
PERF-10	0.132	0.097	0.78	0.02
Numvisit	-0.009	-0.010	0.89	0.79
AGE	0.005	0.041	0.82	0.30
ACT-6	-0.052	-0.020	0.89	0.60
ACT-2	0.195	0.054	0.91	0.15
(Constant)	4.01			0.00

FS 1: factor score 1 for motivation scale
FS 3: factor score 3 for motivation scale
FS 4: factor score 4 for motivation scale
DIFF: absolute value for the difference b/w perceived and preferred crowding level
IP 1: difference b/w importance and performance mesure for item 1 in Table 3
IP 8: difference b/w importance and performancc measure for item 8 in Table 3
PERF-x: performance measure for item x in Table 3
Numvizit: Number of previous visit
AGE: age.
ACT-6: Whether of not participated in camping(Dummy)
ACT-2: Whether of not participated in Temple visit(Dummy)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아마도 다중공선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개개 변수의 BETA(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를 검토하면 제시된 만족도 모델에서 만족도에 가장 커다랗게 기여하는 변수는 인문 / 자연경관에 대한 감상동기의 요인점수변수로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매력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둘째로는, 대피소 및 휴식시설에 대한평가로 다른 성취도 평가 보다 월등히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고 찰

본 공원을 방문하는 동기 즉, 이유는 4가지 차원에서 이해되는데 등산 등의 행위참여, 종교 및 과학적 탐구욕, 자연및 인문 경관 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기이다. 가야산 공원의 방문에 따른 만족은 명목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 되었다. 2 / 3의 이용자들은 이용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다른 변수와는 개별적으로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불만족한 경험후 차후의 이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증명하고 있다. 방문동기는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동기가 커지면서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혹은 일상생활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동기를 본 공원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러가지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만족도모델에 삽입되어 유의성이 검토된 항목으로는 대피소 및 휴식시설, 입구안내원의 도움, 방향 및 거리표지판, 그리고 공원에 관한 과학적 사실전시 등이었다.

예상되었던 대로 인지과밀도와 만족도는 서로 관계가 결여 되었다. 그렇지만 예상되던 여러가지 변수와 만족도와의 관계가 분석 결과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몇가

지 방법론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만족도 문항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이다. 만족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단일 항목의 질문은 이용자 만족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만족 측정을 위한 다항목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이용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의 제시 없이 규제에 대한 태도 파악은 자료의 타당성감소를 유발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사항은 설문응답자의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어내는 문제이다. 공원 입구에서의 표본조사는 지친 귀성객이거나 발걸음이 빠른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설문의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응답을 얻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표본의 거주 주소를 얻은 후 우편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공원내에서는 무료 입장권의 배부 등의 조사참여를 유발시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Diffon, R.B., A.R.Graefe and A.J.Fedler. 1981. Recreation Satisfaction at Buffalo National River: some measurement concerns. *In*, USDA For. Serv. 1981. Some recent products of river recreation research. USDA For. Serv., Gen. Tech. Rep. NC-63. pp. 9-17
2. Lucas, R. C. 1980. Use patterns and visitor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prefererences in nine wilderness and other roadless areas. USDA For. Serv., Res. pap INT-253.
3. Manning, R. E. 1986.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Corvallis, Oregon: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166pp.
4. Petty, R. E. and J. T. Cacioppo. 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g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5. Stankey, G. H. 1973. Visitor perception of wilderness recreation carring capacity. USDA For. Serv., Res. pap. INT-142.